



한국노벨과학포럼

# 성명서



이사장	백성기	공동대표	김태경, 주기재, 정성오, 장진영	전화	02-540-0573
사무총장	박원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01 경인프라자 401호		

## 포스텍의 수능시험 점수 거부 환영

한국노벨과학포럼은 포항공과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입시제도 개편을 적극 환영합니다. 포스텍은 수능시험 점수 중심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대신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행 수능시험 제도는 '기억력'을 중시하던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산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기억력에 의존한 '정답 고르기' 능력의 중요성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현재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인터넷과 컴퓨터가 인간의 기억력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포스텍 김성근 총장은 11월 13일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수능시험 준비에 매달리면서 '창의력'이 저해되고, 결국 주어진 정답만 잘 찾는 '문제풀이 숙련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4.11.13). 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객관식 수능시험 점수의 한계는 2024년 11월 3일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비례로 선발된 서울대 학부 졸업생들의 성적이 수능시험 중심으로 선발된 일반학생들보다 모든 계열에서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수능시험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텍이 학업 성적 외에도 인성과 리더십을 평가하기로 한 점은 더욱 환영할 만합니다. 인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맑은 마음’을 의미하며,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대한민국 수능시험은 포스텍과 선진국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첫째, 수능시험에 매몰될수록 수면 부족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인성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들과 함께 놀며 소통 능력과 관계 형성을 배워야 할 시기에, 학원에서 객관식 문제 풀이에만 매달리게 되어 사회성 발달에 실패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객관식 수능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험문제 풀이에 매달리면서 폭넓은 사고력 발달에 필요한 독서 동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형성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객관식 수능시험 제도가 공정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데, 공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수능시험은 ‘공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고르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 측정과는 더욱 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능시험은 ‘내용타당도’의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내용타당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객관식 영어시험입니다. 영어 능력을 측정하려면 그 사람의 ‘듣고, 말하는 대화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어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하여 그 시험의 점수가 상당히 높아도 실제로 대화 능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벨과학포럼은 포스텍의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

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스텍의 성공적인 모델이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교육 평가 시스템이 하루빨리 선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포스텍의 새로운 입시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행복도를 높이게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게 하고, 입시학원 대신 또래들과 더 놀게 하며,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촉진될 것입니다.

2024년말까지 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전무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적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능시험 제도라는 점에서 포스텍의 입학제도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노벨과학포럼은 포스텍의 입시정책 개혁을 지지합니다. 포스텍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고대하며, 이후 모든 대학이 포스텍의 입시정책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한 저변 인구가 폭넓게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11.14

한국노벨과학포럼